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부활절 제2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자비하신 주님, 어둠의 장막이 걷힌 후 방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처럼 주님의 은총은 늘 경이롭습니다. 세속의 삶에 몰두하면서 둔해진 우리 영혼에 틈을 내시고, 하늘의 빛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마치 노란색 전보처럼 우리 삶을 뒤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어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여전히 교만과 헛된 욕심과 불신앙의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십시오. 애욕 살이에 근심만 많은 것처럼, 사소하고 피상적인 것들에 붙들려 전전긍긍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해주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되 거짓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당당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시94:18-19	인도자
----------------	-----------------	-----

♠ 교 독 문	53. 요한계시록 21장	다함께
---------------	---------------------	-----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	-----

대표기도	I. 김서현 선생 II. 한완식 장로
------------	----------------------

응 답 송	찬양대
-------------	-----

찬 송	332.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다함께
-----------	------------------------	-----

성경봉독	I. 요20:19-23	인도자
------------	--------------------	-----

II. 요일3:1-3	박미영 집사
-------------------	--------

찬 양	찬양대
-----------	-----

말 씬	I. 문을 여는 예수님	김재흥 목사
-----------	--------------------	--------

II. 주께 소망을 둔 사람	김기석 목사
-----------------------	--------

거듭기도	다함께
------------	-----

- 현신의 찬송 427. 내가 매일 기쁘게 다함께
- 헌금봉헌 다함께
-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사람들의 발 앞에 있는 걸림돌은 치워주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빛을 비추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다 함 께 : 아멘.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자에게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희망과 사랑을 과종하기 위해 세상으로 향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활동	성서의 평화(23)/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랑!	기도 : 윤성종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김태환 선생 구성실 장로	인도자 이인웅 권사

4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용길	윤성종	최영혜	정경례	김윤정
	헌금위원	구성실	박창운	김준호	김인걸	최영혜	장혜숙

자유의 법규

내가 젊은이, 학생, 근로자들의 모임에서 강연을 하다가 “나는 자유롭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들은 몹시 놀라면서 나에게 반문하는 것이었다.

“사제인 당신이 자유로우시다구요? 위계질서를 갖춘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세 가지 서약에 얽매인 채 당신의 생각들을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투쟁하고 있는 당신이 정말 자유로우시단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 있어 자유란 무엇입니까? 당신은 자유로운 인간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친구들이 제기한 솔직하고 진지한 이 질문은 내가 쓰려고 하는 이 글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 글은 모든 사람의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다 심오한 대화를 열 수 있는 몇 가지 요점들만을 제시할 뿐이지 그 이상의 것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자유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자산으로서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뛰어난 선물이다. 자유가 없다면 인간은 사랑할 수 없을 것이고 사랑이 없다면 인간은 고립된 존재,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자유는 그리스도가 획득하여 인간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이다.

그리스도교는 자유의 종교다. 그래서 성 바울은 말할 수 있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누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갈 5:13).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자유다. “당신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는 당신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요8:32) 그 자유는 사랑과 아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므로 성 요한은 단언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요일3:14)

그러면 나는 언제 자유로운가?

내가 행하는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만을 행할 때 나는 자유롭다.

내가 사물과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그것들이 보다 자유로운 것으로 존속하며, 나도 그것에 매이지 않을 때 나는 자유롭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 안으로부터 “너는 부활하고 있다”라는 음성을 들을 때 나는 자유롭다.

자유롭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자유롭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받아들일 때 나는 자유롭다.
나의 자유가 돈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질 때 나는 자유롭다.
죽음이 내가 충만한 생명으로 통과하는 관문이 될 때 나는 자유롭다.
내가 내 자신일 때 나는 자유롭다.
창조된 온갖 존재 안에 현존하는 선한 부분을 발견할 때 나는 자유롭다.

불가능한 것을 믿을 때 나는 자유롭다.
삶에서 내 양심을 첫 자리에 받아들일 때 나는 자유롭다.
내 자유에 대한 보상이 없을 때 나는 자유롭다.
나의 유일한 법이 사랑이라면 나는 자유롭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 않으면서 나를 그들에게 줄 줄 알 때 나는 자유롭다.

내 목소리가 역사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기여할 때 나는 자유롭다.
탱크로 인해 강제로 입을 다물린 채 억압에 계속 항거할 때 나는 자유롭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에 대한 나의 권리를 부단히 선포할 때 나는 자유롭다.

신념을 갖고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보호할 때 나는 자유롭다.

나보다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나의 자유를 선사할 때 나는 자유롭다.

부유하면서도 계속 가난한 사람들의 자유를 우선시키고 그들의 가난을 부러워할 때 나는 자유롭다.

나의 하나님이 내 죄악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믿을 때 나는 자유롭다.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과 태양과 내가 매순간 새롭다는 것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나는 자유롭다.

행한 선은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때 나는 자유롭다.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서는 그분의 자비가 우리의 비열함보다 무게가 더 나간다는 것을 믿을 때 나는 자유롭다.

온갖 미움, 온갖 배신, 온갖 사악 뒤에 있는 사랑을 거스르는 죄악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을 때 나는 자유롭다.(계속)

- 아리아스, <<내가 믿지 않는 하느님>> 중에서

■ 마/음/으/조/워/는/글

삶의 리듬을 그분의 리듬에

니코스 카잔차키스

우리의 심오한 인간으로서의 의무는
신의 행군 리듬을 해석하거나
밝히는 것이 아니라, 급히 지나가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의 리듬을
그분의 리듬에 맞추는 것이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우리들 필멸(必滅)의 인간은
불멸의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으리라.
그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불멸인 그 분과 함께 나아간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사소한 일들에의 집착을,
또 우리들 좁아터진 머리의 협소함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빛도록 주어진 흙투성이 물질의
예속을 자유로 변질시킬 수 있으리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유주원 안홍숙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장영숙 김철수 유영남 김윤수 박옥경 장성호 백승민 유명숙 박애순
 박창운 허정윤 신윤정 이예정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이인웅 이한림
 김명희 한선희 최종미 왕성환 강순배 권미숙 조병무 송양진

월정헌금:

권미정 김성자 김정섭 김정애 김종철 고영애 김승현 김수진 배부례
 박찬정 송의섭 이갑재 이재구 황선희 이성범 전영자

감사헌금:

길민수 문홍일 이미혜 권미숙 박세진 왕성환 강순배 박병구 임주빈
 최현옥 서원금 김영학 김현주 박영균 최호정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이동천 방문성 한선희 김주현 윤미경 윤수진 박병선 정지은
 (누계-46,100,000원)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장 해 숙	차 해 심	조 순 덕	박 영 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이 재 문	진 정 애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김 진 경	문 영 혜
갈 릴 리	안 정 숙	박 애 순	문 금 석	조 병 주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이 은 옥	박 흥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홍 복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최 희 정	이 기 분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강 순 배	이 봉 옥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구 성 실	김 필 순
가 버 나 움	안 흥 숙	오 현 정	박 찬 정	안 흥 숙
나 사 렛	백 해 숙	정 옥 영	정 옥 영	김 시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유 경 순	김 혜 권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윤 정 화	방 극 숙
다 메 섹	박 해 경	최 영 혜	조 향 미	임 창 선

